
국제개발협력 '11년 통합평가 결과 및 '12년 통합평가 계획(안)

2012.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 차

I. '11년 통합평가 결과	5
1. 추진 경과	5
2. 소위평가 결과	6
3. 자체평가 결과	14
4. 시사점	16
II. '12년 통합평가 계획(안)	17
1. 소위평가 계획	18
2. 자체평가 계획	22
III. 향후 일정	23

I. '11년 통합평가 결과

1 추진 경과

◇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1.3월)에서 의결된 '2011년 통합평가 계획'에 따라 소위평가 3건, 자체평가 21건 등 총 24건의 평가 실시

- (소위평가) 개발컨설팅 사업, 주요 기관 ODA 추진체계, ICT 분야 ODA 사업에 대하여 평가소위 주관으로 평가 실시
 - 용역기관 선정('11.4~6월) : 과제별로 평가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실시기관을 선정
 - * 용역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개발컨설팅),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주요 기관 추진체계), 산업연구원(ICT ODA)
 - 현지조사 실시('11.8월) : 연구용역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시아·중남미 지역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 방문국가 : 베트남(개발컨설팅), 페루·과테말라·필리핀·인니(ICT ODA)
 - 중간('11.10월) 및 최종 보고회('11.11월) : 평가보고서 중간점검 및 수정·보완, 관계부처 협의 실시
 - 평가소위 심의('11.12월) : 민관합동 평가소위(국정1실장 주재)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1차 심의 실시
- (자체평가) 4개 시행기관에서 21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소위 심의('12.1월) 실시
 - 기관별로는 KOICA 11건, EDCF 8건, 교과부 1건, KOICA-농식품부 합동평가 1건을 실시

2 소위평가 결과

1 개발컨설팅 ODA사업 평가

◇ 개발컨설팅 분야 ODA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개발컨설팅 원조정책, 추진체계 및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1. 평가대상

□ 개발컨설팅 ODA 사업 중 ‘정책자문형’ 및 ‘프로젝트 사전단계’ 부문의 추진체계 및 원조사업을 평가

- 추진체계 : 기관별 개발컨설팅 사업의 대상국·지원분야, 추진절차, 참여인력 등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원조사업 : 기관별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해 문헌·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평가

□ (사업범위) 원조기관별 참여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정책자문 및 프로젝트 사전단계 컨설팅 사업에 한정

- 정책자문 단계 : 재정부 KSP, KOICA 정책자문, 방통위 정책자문
- 프로젝트 사전단계 : EDCF F/S*, KOICA F/S·개발조사**

* F/S: 본사업 지원적합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F/S와는 달리 별도 사업형태로 기초조사·실시설계·종합개발계획 등

< 개발컨설팅 사업 유형 및 평가범위 >

정책자문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사전 단계	실행 단계
- 재정부 KSP - KOICA 정책자문 - 방통위 정책자문	- EDCF F/S - KOICA F/S - KOICA 개발조사	*EDCF·KOICA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 세계은행, "컨설팅 서비스" 분류 기준을 준용

2. 평가결과

① 추진체계 측면

- ☐ 정책자문 사업 시행기관들 간 사업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참여가 미미한 편
 - 사업발굴·선정시 기관간 협의 부족으로 동일국 유사사업 발생 가능성이 크고 정책자문결과의 후속사업연계 실적이 저조
 - 사업수행체계상 관계부처 참여도가 미미하여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곤란 및 사업 관심도 저하 우려
- ☐ 프로젝트 사전단계에서 F/S 및 개발조사가 그 중요도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추진되는 경향

② 원조사업 측면

- ☐ (적절성) 일부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이고 체계적·종합적인 면이 부족하고, 사업간 유사성으로 중복사업이 발생할 소지
- ☐ (효과성) 현지조사(베트남) 결과, 사업효과성은 양호한 편*
 - KSP, KOICA의 정책자문·개발조사, 방통위 정책자문 사업이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EDCF·민간투자로 연계
- ☐ (지속가능성) 현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속가능성은 확보

* 베트남 주요사업에 한정된 것이며, 타 국가사업에 대해선 추가평가 필요

3. 개선과제

① 시행기관간 사업연계 강화

- 개발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방지 및 후속사업 연계가 중요

⇒ 『시행기관간 개발컨설팅 사업 연계강화 방안』 마련

② 정책자문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참여 강화

- 정책자문은 소관부처가 전문성과 개발경험, 전문가 네트워크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추진과정 참여가 매우 중요

⇒ 『정책자문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참여방안』 마련

③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정책자문·개발조사사업 특성상 본사업 연결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종료후의 사후관리단계가 매우 중요

⇒ 『개발컨설팅 정책자문·개발조사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④ 개발조사사업의 비중 확대

- 개발조사사업은 다양한 개발협력 콘텐츠 전수에 적합하고 후속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

⇒ 『개발조사사업 발전방안』 마련

⑤ 개발컨설팅 사업 제도 개선

- 수원국측의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EDCF 미승인 비중을 줄이고, KOICA의 본사업 규모에 맞게 F/S 제도를 개선할 필요

⇒ 『EDCF 및 KOICA의 프로젝트 사전단계 F/S 내실화 방안』 마련

② 국내 주요기관의 ODA 체제 평가

◇ 국내 주요 ODA 기관의 예산·조직, 사업절차,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효과적인 ODA 추진체계 모색

* 최초로 전체 ODA 기관의 현황 및 사업 수행절차 등을 전수조사

1. 평가대상

□ 국내의 주요 ODA 기관의 추진체계 / 국내의 주요 기관별 ODA 수행체계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국내 주요 ODA 기관의 추진체계 : 법적 근거, 의사결정, 조직 및 인력, 평가체제 등 비교 분석
- 국내 주요 기관별 ODA 수행체계 분석 : 사업준비-사업선정-사업시행-사업평가 등 ODA 사업의 수행체계 비교 분석

2. 평가결과

① 추진체계 측면

□ 유·무상 통합추진체계의 기본틀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사업 추진단계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협력체계가 필요

- 대부분의 ODA가 분야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콘텐츠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관계부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방안의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

- 사업간 연계, 중복 방지 등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 활성화 필요

* 특히 무상원조의 분절화 해소를 위해 외교통상부(KOICA) ↔ 개별 부처간 연계 및 협력 강화 필요

- 주 시행기관(KOICA, EDCF)은 효율적인 ODA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

② 사업수행체계 측면

- 사업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체계화, 사업간 연계 · 중복 방지를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 참여 확대 필요
- 사업준비-사업선정-사업시행-사업평가 등 사업수행체계의 체계적 관리 필요

3. 개선과제

①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체계구축

- **(KOICA·EDCF)** 기관별 전문성과 개발 know-how 전문성을 결합한 유기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사전정보 및 인력공유)
- **(일반 부처)** 부처별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 마련 (개별부처 단위의 독자적 사업보다 KOICA · EDCF와 유기적 연계 및 조율)

② 사업수행체계의 선진화 방안 마련

- **(KOICA·EDCF)**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발굴단계 에서부터 부처 전문성 활용
- **(일반 부처)**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절차 마련, 사업 중간 점검 및 관리 강화

③ ODA 사업의 평가제도 개선

- 평가의 객관성 제고(대조평가제도 시범도입) 및 평가 know-how의 확산(일반 시행기관의 평가지표와 CPS 연계)
- HLF-4 이후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국제논의 참여

③ ICT분야 ODA 평가

◇ ICT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전략, 수행체계, 사업방식에 대한 정책제안을 도출

1. 평가대상

- 한국이 지원한 **ICT 분야 전체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최근 **5년간('05~'10)** 사업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선정
 - 기관별 평가 : ICT 분야 지원전략 유무, 기관별 추진체계, 기관간 협의체계, 사업효과성, 평가시스템 등을 점검
 - 원조사업 : ICT 사업을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지원현황 및 특징을 분석·평가

2. 평가결과

① 기관별 평가

- 높은 지원비중(총 원조액의 15%)에 비해 국가 차원의 **ICT 분야 ODA 전략** 및 원조기관(KOICA, EDCF) 내 전담부서 부재

② 원조사업

- **(프로젝트)** 단순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이 단조롭고 우리 개발경험 기반의 강점 콘텐츠 활용이 미흡
 - 특히, 입지 및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에 큰 차이
- **(초청연수)** 참석자의 만족도가 높고 협력국 정책입안에 기여하나, 국내 시행기관별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중복연수 발생

- 전자정부, 이러닝, 인터넷망, 방송 등이 주요 지원분야로 일부 부처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유사

* 전자정부 : 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 : 방송통신정책연구원

- (봉사단) '11년부터 WFK로 통합·운영 중이나, 기지원된 ICT 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내 훈련 프로그램도 취약

* 기지원 ICT 시설이 타 부처 봉사단·전문가 파견과 연계된 사례는 전무

- (개발컨설팅) 수원국 정책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기관별 정보공유 및 후속사업·민간사업과의 연계 미흡

3. 개선과제

① ICT 유관기관 T/F 구성

- ICT 유관부처(재정부, 외교부,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합동으로 『ICT 분야 ODA 유관기관 T/F 구성』

② ICT분야 ODA 지원전략 수립

- 우리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ICT 분야 ODA 지원 전략 및 모델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CPS) 및 시행계획에 반영

③ 연계강화 및 패키지형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 발굴단계부터 부처간 협의하에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확대

④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11년 평가소위 후속과제인 원조사업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완성하고, 민관협력 및 거점대학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초청연수 효율화, 봉사단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

2011년 소위평가결과 개선과제 종합

1. 개발컨설팅 ODA사업 평가

과제명	소관부처	기한
원조 시행기관간 개발컨설팅사업 연계 강화 방안	재정부(수은) 외교부(KOICA)	'12.6월
개발컨설팅 정책자문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참여 강화방안		'12.6월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12.6월
개발조사사업 발전방안		'12.6월
EDCF 및 KOICA 프로젝트 F/S 내실화 방안		'12.6월

2. 국내 주요기관의 공적개발원조 체제 평가

과제명	소관부처	기한
기관별 전문성과 개발 know-how 전문성 결합	재정부 외교부	'12.3월
부처별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한 원조시스템	관계부처	'12.6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행체제개편	재정부 외교부	'12.3월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절차 등 수행체제 개편	관계부처	'12.6월
평가 객관성 제고 및 평가 know-how확산	평가소위 재정부·외교부	'12.3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국제논의 참여	평가소위 재정부·외교부	'12.6월

3. ICT분야 ODA 평가

과제명	소관부처	기한
ICT 기관 T/F 구성	재정부 외교부	'12.3월
ICT분야 ODA 지원전략 수립	재정부 외교부	'12.6월
연계강화 및 패키지형 사업 추진방안 마련	재정부 외교부	'12.5월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정부 외교부	'12.5월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외교부	'12.8월
봉사단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외교부	'12.8월

3 자체평가 결과

1. 추진현황

- '11년에는 총 4개 시행기관에서 21건의 자체평가를 실시

< '11년 자체평가과제 목록 >

평가기관	평 가 과 제
KOICA (11건)	< 주제별 평가(3건) > 1. 2011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평가 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평가 3. 해외긴급구호사업 성과 및 추진체계 종합평가
	< 프로젝트 평가(8건) > 4. 중미·카리브 국가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공동평가 5. 에티오피아 가족계획사업 영향력 평가 6. 몽골 축산분야 3개사업 사후 종합평가 7. 과테말라 난민 정착지원 사후평가 8. 캄보디아 국가 측량기준점 설치사업 평가 9. 한국-베트남 산업기술학교 2차지원 사업 사후평가 10. 케냐 식수지원사업 사후평가 11. ICT 훈련센터 건립사업 사후평가
수은 (EDCF) (8건)	< 국별평가(1건) > 1. 인도네시아 국별지원 종합평가
	< 분야별 평가(1건) > 2. 상·하수도분야 지원 평가
	< 프로젝트 평가(6건) > 3. 스리랑카 발란고다~반다라웰라간 도로 개보수 사업 사후평가 4.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보수 사업 사후평가 5.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6.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건립사업 사후평가 7. 스리랑카 Galle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사후평가 8. 인도네시아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사후평가
교과부 (1건)	○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농식품부-KOICA (1건)	○ 캄보디아 농촌분야사업 공동평가

2. 자체평가 검토결과

- (평가보고서) 평가체계를 갖춘 **KOICA · EDCF** 外 일반부처는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가 저조하고 기관간 보고서 수준 상이, 일부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 등 문제점 노정

⇒ 자체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

- (평가기관) 외부공모 방식을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나, 일부 평가진은 분야별 전문가(예:도로,축산)로만 구성

⇒ 평가진 구성시 ODA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시켜 종합적 시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

- (평가수행) 대부분 평가기관 단독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평가는 수원국*과 그리고 관계기관**과 공동평가 수행

* KOICA-콜롬비아 '중미 직업훈련사업', EDCF-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농식품부-KOICA '캄보디아 농촌분야 사업'

⇒ 수혜자중심평가, 평가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동평가 확대 필요

- (평가기준 · 지표) 일부평가는 범분야 이슈를 반영*하고 평가 지표가 사전에 수립**되었으나 대부분 미흡

* KOICA의 과테말라 난민 지원 평가, EDCF의 인도네시아 평가

** KOICA의 에티오피아 가족계획사업 영향력 평가

⇒ 평가기준으로 범분야 이슈(여성 · 환경 등)를 적극 도입하고 정량적 영향력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사전설계 등 강화

- (평가활용) 작년과 같이 대부분의 정책제언이 추상적이며, 연구용역 지연 등으로 환류계획 미수립

⇒ 정책제언의 구체화 및 평가보고서상 환류계획 추가 필요

4 시사점

1. 소위평가

- 자체평가와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둘 간의 연계성이 미흡해 자체평가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
 - 평가과정이 연구용역기관과 총리실간 의견 교환으로만 이루어져 평가소위 민간위원의 의견 반영에 한계
 - 평가소위 민간위원 구성이 ODA 전문성에만 맞추어져 '평가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
 - '10년 소위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행점검이 미흡해 평가환류를 제고할 필요

2. 자체평가

- KOICA · EDCF 외 일반부처는 평가의무나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도가 저조하고, 기관 간 평가 결과보고서 수준이 상이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등 외부평가를 하지만, 용역 발주기관에 대한 평가 관대화 우려 등 자체평가의 한계를 노정
 - 평가결과 보고서에 정책제언만 이루어지고 환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평가환류에 소극적
 - 타 기관(농식품부-KOICA) 및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범분야 (Cross-cutting issue) 기준' 포함 등 새로운 시도는 확산 필요
- * (KOICA) 콜롬비아와의 공동평가를 위한 협의의사록(R/D) 교환
(EDCF) 캄보디아 측과 의사록(Aide Memoire) 서명 후 공동평가

☞ 소위평가·자체평가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

Ⅱ. '12년 통합평가 계획(안)

기 본 방 향

'12년 OECD DAC의 동료평가를 계기로 소위평가와 자체평가간 연계 강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해 ODA 평가 선진화 추진

① 소위평가-자체평가 간 연계성 강화

- 매년 1~2개 분야·주제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ODA 특성에 적합한 평가분석틀 정립

② 평가의 전문성 제고

- 통합평가소위의 '평가전문성' 강화를 위해 **1~2명의 평가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 추진

* 통합평가소위의 최대 위원수는 15명이며, 현재 13명임

③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자체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간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사업을 상호 교환, 동료평가(Peer Review) 도입 추진

* KOICA·EDCF의 자체평가과제 1건을 선정하여 시범 추진(공동평가)

④ 통합평가 지원기반 강화

- **(ODA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ODA사업의 실시간 진도 점검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진행상황 입력 의무화** 추진
- **(평가환류 강화)** 소위평가·자체평가의 환류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평가소위에서 반기별 점검 추진

* 점검 일정 : 상반기(6~7월), 하반기(11~12월)

1 소위평가 계획

1. 평가과제 선정과정

□ 평가과제(안) 접수 · 선정

- 다수기관 관련 사업, 제도 중 효율성 제고 등이 시급하고, 평가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15건 접수
 - * 과제(안) 접수 기간 : '12.1.10~18
 - * 의견수렴 기관(23) : 관계부처(14), 시행기관(2), 평가소위 민간위원(7)
-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해외봉사단 (**WFK**) 평가 3건을 소위평가 과제로 선정(제9차 평가소위('12.1.31))

참고: 기타 과제(안) 선정 제외 사유

- 유 · 무상 대형 프로젝트 · 초청연수 사업 · NGO지원 평가 : '10년 평가과제와 내용상 중복될 우려로 인해 제외
- PPP사업 평가 : 초기단계로 대상사업이 적어 제외
- 양성평등 지원 평가 : 외교부 주관으로 금년에 여성 · 환경 등에 대한 시범평가를 추진하므로 제외
- 베트남 CPS 평가지표 마련 · 국별지원평가 : CPS 수립 초기 단계이므로 CPS체제 정착후 추진이 바람직
- 보건의료 분야 ODA · 수원국 시스템 활용도 · ODA 조달체제 · ODA 인지도 제고 사업 · ODA 관련 연구체제 · 취약국 지원 평가 : 중요성은 인정되나, 타 과제(안)에 비해 시급성이 낮아 제외

2. 소위평가 과제 선정안 (3개)

①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선정 배경

- ODA 통합평가시스템 도입 후, ODA 시행기관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특성, 국내 ODA 환경과 여건에 맞는 메타평가 체계 및 기법을 마련할 필요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해 재평가를 시범실시하고, **ODA** 평가기법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필요

☐ 세부 연구내용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의 ODA 평가체계(특히, 메타평가)에 대한 문헌 연구조사
-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들이 기 추진한 자체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메타평가 체계 및 기법 마련
- ODA 통합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실시된 '10~'11년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해 메타평가 실시
 - * 총 47건 : KOICA(18), EDCF(12), 행안부(5), 교과부(3), 지경부(3), 농식품부(2), 복지부(1) 재정부(1), 여성부(1), 방통위(1)
- ODA 자체평가 관련 현장조사 및 메타평가 결과를 토대로 ODA 평가체계 및 기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향후 활용방안

- 「'13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
- '13년 ODA 통합평가시스템 개편에 활용

②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 선정 배경

- 농림수산은 우리나라 **ODA**의 주요 분야*로 다수의 시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간 범정부적 통합적 평가는 미흡
 - 외교부(KOICA),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진청을 비롯한 다수의 시행기관이 농촌개발 등의 유사한 ODA 사업을 추진 중
- * '12년 기준, 농림수산은 무상원조의 11.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 그간 기관별로 추진한 농림수산 분야 **ODA**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 전략 수립 필요

□ 세부 연구내용

-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 ODA 원조기관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현황 및 전략 분석
 - * 협력기구 : UN, OECD 등, 농림수산 분야 기구 : FAO · IFAD · WFP 등
-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분야 ODA 지원현황, 시행기관별 추진 체계 조사 등을 통해 분절화 등의 문제점 분석
- 농림수산 분야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협력 방안, 사업 발굴 및 수행 체계 개선 등 정책방향 도출

□ 향후 활용방안

- 농림수산 분야 ODA 선진화 추진체계 마련
- 농림수산 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 및 모델 수립에 활용

③ 해외봉사단(WFK : World Friends Korea) 평가

□ 선정 배경

- '11년부터 해외봉사단 파견성과를 높이기 위해 봉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부처별 브랜드 및 사업예산을 통합 시행
 - * '09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봉사단을 WFK로 브랜드 통합
 - * '11년 4개 부처의 6개 봉사단(외교부 : KOICA봉사단 · 중장기자문단, 행안부 : IT청년봉사단, 교과부 : 대학생봉사단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지경부 : 퇴직전문가) 예산을 KOICA로 통합
- 브랜드 · 예산 통합 이후 그간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통합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세부 연구내용

- 관계부처, 민간기관(기업 · NGO 등)의 봉사단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봉사단 운영현황 및 시스템 분석
- '11년 통합 이후 WFK 사업의 추진현황 및 그간의 사업성과와 '12년 WFK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
 - 통합 이전 기관별로 추진하던 봉사단 운영체계 대비 통합 이후의 우수 실적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기관별 전문성과 범부처 통합추진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체계, 사업운영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향후 활용방안

- WFK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향후 기관간 ODA 사업 통합시 동 평가결과를 활용

2 자체평가 계획

□ 5개 기관에서 총 31건의 자체평가 과제(안) 제출

-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사업·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선정하여 제출

평가기관	평 가 과 제 (안)
KOICA (19개 과제)	○ 국별평가(1건) : 무상원조 대상국 CPS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평가 ○ 정책/전략 평가(1건) : 무상원조 비구속화(Untying)전략 이행현황 평가 ○ 주제별 평가(3건) :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에티오피아 가족계획사업 영향력 평가(Impact Evaluation), 중미·카리브국가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공동평가 ○ 형태별 평가(1건) : 송·배전 전력사업의 효과성 평가 ○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13건) : 1) 방글라데시 다카 미르푸르 직훈련 개보수 및 역량강화사업, 2)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 교육원 역량 강화사업, 3) 네팔 정부통합데이터 구축사업, 4) 팔레스타인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 5) 팔레스타인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6) 탄자니아 공대 ICT센터 시설개보수 및 역량강화사업, 7)라오스 볼리칸군 7개 마을 식수개발사업, 8) <u>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지원 사업*</u>, 9) 몽골 관세행정현대화사업, 10)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11) 케냐 나이로비 등 3개지역 초등학교 건립사업, 12~13) 인도네시아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역량강화 1차·2차 사업
수은(EDCF) (9개 과제)	○ 국별평가(1건) : 방글라데시 국별지원 종합평가 ○ 분야별 평가(1건) : IT 분야 평가 ○ 주제별 평가(1건) : 스리랑카 도로분야에 대한 영향력 분석 ○ 프로젝트 평가(6건) : 1) 몽골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2) 울란 바토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3~4) <u>방글라데시 통신망 현대화사업</u> 및 <u>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u> 사후평가, 5)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1·2차 확충사업 사후평가, 6) 니카라과 전력망 확충사업
부·청 (3개 과제)	- 교과부(1건) :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 농식품부(1건)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생산 시설·기술 지원사업 - 산림청(1건) : 몽골 그린벨트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 KOICA·EDCF 공동평가 추진사업

Ⅲ. 향후 일정

□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 '12. 2월말

○ 평가소위 및 각 시행기관별 연간평가계획 확정

□ 연간통합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발주 : ~ '12. 4월

○ 평가소위 및 각 시행기관별로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기관 선정

* 세부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 평가팀 구성 등

□ 기관별 평가 실시 : '12. 4~10월

□ 평가결과 종합 및 평가소위 상정 : '12년 4/4분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 '12. 12월 경

'12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계획(안)

2012.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관련 기조	29
II. 국가협력전략(CPS) 진행경과	29
III. '11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 현황	30
IV. 국가협력전략(CPS) 추진상 문제점	30
V. '12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상 개선방안 ..	31
VI. 향후 일정	32

I.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 관련 기초

◇ 국제개발협력 통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 및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기로 결정

□ 추진과제

- '12년까지 중점협력국별(26개) 통합 CPS 수립
- 중점협력국 선정주기(3~5년)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반영, 차기 CPS 보완
- 수원국 ODA에 대한 CPS 효과성 평가 → 차기 CPS 반영

□ 추진절차

- CPS 작성 가이드라인(총리실 주관) 마련
- CPS 전담팀(유·무상 주관기관) 구성 → 국가별 중점지원분야(2~3개) 선정
- 수원국 협의 등을 통해 CPS 초안을 보완 후
유·무상 주관기관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위에서 확정

II. 국가협력전략(CPS) 진행경과

□ 「유·무상 통합 CPS 수립방안」 마련('10.9, 총리실 내부보고)

- 합동 전담팀(총리실·유무상 주관부처)을 구성, 3개국(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CPS를 우선 착수하고, '12년까지 중점협력국 CPS 수립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CPS 관련내용 반영('10.10, 국개위)

□ 3개국 CPS(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작성·확정('11.8, 국개위)

□ '11년 대상국가(11개)* CPS 작성중(유·무상 주관부처)

* 중점협력국(26개) = 우선작성(3개국) + '11년 대상국(11개) + '12년 대상국(12개)

Ⅲ. '11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현황

- '11년 대상국가(11개국) CPS 작성은 수원국 협의, 부처간 의견 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 상반기중 완료 예정

Ⅳ. 국가협력전략(CPS) 추진상 문제점

- ① (업무추진체계) '11년 대상국가 CPS는 외교부·기재부 중심으로 취합·작성중이나 타부처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 발생
* 일부 부처는 국가별 중점지원분야에 해당부처 관련분야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는 경향 존재
- ② (부처 참여) 주관부처가 CPS 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중간단계에서 관련부처 의견 조회 → 관련부처가 작성초기부터 관여하지 못하여, 관련부처 검토 및 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
* 일부 부처는 자체 예산으로 국가별 해당분야 중점지원방향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 제기
- ③ (수원국 협의) 현지 정책협의 시기·부처간 출장 일정 및 출장단 구성 조율이 일부 원활치 않아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애로
- ④ (진행일정) 계획된 CPS 추진 일정 준수를 위해 관련부처에 충분한 검토시간 미부여 → 관련부처 검토 및 의견 반영에 애로

V. '12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상 개선방안

< 기본 방 향 >

- ◇ 내실있는 CPS 작성을 위해 총리실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
 - 초안단계부터 관계부처간 상시협의·조정 채널 구축
 - 당초 계획된 일정 달성을 목표로 하되, 수원국 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국가는 현지실정에 맞게 추진일정 일부 조정

① (업무추진체계) 총리실 주관으로 **CPS** 점검회의 개최 → 진행상황 점검·이전 조정

※ 제1차 CPS 점검회의 기개최(총리실 주관, 2.14)

- 총리실 주관으로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한 조정방안 마련 예정
(수원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중점협력 분야, 관계부처 선호, 기존 지원 실적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등을 종합·고려)

② (부처참여) 총리실과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은 부처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11년 사업(계속) : **CPS** 최종안 확정 이전에 CPS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중점지원분야 등 필요내용 반영
- '12년 사업(신규) : 부처 관계자가 초기단계부터 주관기관 T/F의 CPS 작성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내용 공유 및 의견 반영

③ (수원국 협의) 관계기관은 필수인력으로 합동 출장단을 구성하고, 재외공관·사무소는 수원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현지 정책협의를 지원

④ (진행일정) '11년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12년 사업은 '11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진행

VI. 향후 일정

☐ 사안별로 총리실 주관으로 **CPS 점검회의** 개최(필요시)

☐ '11년 대상국가(11개) **CPS 작성 완료***(12년 상반기 내)

* 국가별 CPS는 완료되는 대로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위원회에 상정·확정

☐ '12년 대상국가(12개) **CPS 착수**(12년 상반기)

☐ '12년 대상국가(12개) **CPS 작성 마무리**(13년)

* 작성이 완료되는 CPS부터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위원회에 상정·확정

참고 1

'11년 중점협력국 CPS 추진현황

지역	국가	주관부처	사전 정책협의	중점지원분야	완료예정시기
동남아시아		기획재정부	'11.9월		'12.3월
		기획재정부	'11.12월		'12.4월
		외교통상부	'11.11월		'12.3월
동북아·CIS		외교통상부	'12.2월		'12.4월
		외교통상부	'12.1월		'12.6월
		기획재정부	'12.1월		'12.6월
서남아시아		기획재정부	'11.12월		'12.4월
		기획재정부	'11.9월		'12.3월
중남미		외교통상부	'11.7월		'12.2월
동아프리카		외교통상부	'11.5월		'12.5월
서아프리카		외교통상부	'11.5월		'12.5월

참고 2

'12년 중점협력국 CPS 추진계획(안)

지역	국가	주관부처	사전 정책협의	완료예정시기
아시아		외교통상부	'12.9월	'13.6월
		외교통상부	'12.3월	'13.6월
		외교통상부	'12.6월	'13.6월
		외교통상부	'12.9월	'13.6월
중남미		외교통상부	'12.3월	'13.6월
		기획재정부	'12.7월	'13.6월
		기획재정부	'12.10월	'13.6월
아프리카		외교통상부	'12.7월	'13.6월
		기획재정부	'12.3월	'13.6월
		외교통상부	'12.10월	'13.6월
		외교통상부	'12.3월	'13.6월
		기획재정부	'12.7월	'13.6월

※ 중점지원분야는 추후 주관부처·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안]

- 요약본 -

2012.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 차

I. 볼리비아의 개발환경 및 주요 특성 ..	39
II.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39
III.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지원 현황	40
IV. 향후 볼리비아와의 협력 전략	40
V. 이행 전략	41
VI. 성과관리 방안	42

I. 볼리비아의 개발환경 및 주요 특성

- **중남미 최빈국이자 소득불균형 정도가 가장 큰 국가***
 - * 1인당 GDP 1,900불('10년 기준), 총인구의 48%, 농촌인구의 80%가 빈곤층
 - 에너지·광물 자원부국이지만, 1차 산품 중심의 수출 의존 경제, 지역·계층별 불평등한 자원배분 구조 등이 원인
- **현 정부 수립('06년)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연평균 4-6%)**
 - 천연가스와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
 - * 정부 재정수입의 50%이상을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이 경제 전반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지대
- **(ODA 수원 현황) 남미 제4위 수원국('09년 기준, 약 726억불*)**
 - * GNI 대비 ODA 비중은 약 4%대 유지
 - 전통 공여국에 대한 의존 탈피 노력,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선호

II.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06-'11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

- **(기조)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4개 주요 영역 선정**
 - 민주적, 생산적, 품위있는, 독립적인 볼리비아 지향
- **(주요 목표) 1차 산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혁신(산업화), 안정적인 직업창출, 생산성 증대, 불평등 감소 및 소외계층 생활 개선**
- **(성과 및 향후 방향) 거시경제(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대 등), 문맹퇴치, 보건 서비스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 달성**
 -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혁신,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과 더불어 소득 불균형 완화 필요

Ⅲ.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지원 현황

- (지원규모) '91년-'10년간 약 7천만불* 지원
 - * 유상 6,400만불(승인 기준), 무상 600만불 지원
- (중점 협력분야) 교통, 보건의료, 농촌 개발
- (평가) 빈곤퇴치, 소외계층 기회 확대에 기여,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원조 조화), 중장기 원조 효과 제고, 사업 및 프로그램간 연계 향상 등이 필요

Ⅳ. 향후 볼리비아와의 협력 전략

< 기본 방향 >

- ◇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화
 - 중점 협력분야 : 교통, 농업, 보건의료

□ 중점 협력분야

- ①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통합, 지역 격차 해소, 수출시장 확보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교량 프로젝트, 동서·서북간 연결 도로사업 등 지원*
 - * 볼리비아 정부의 개발수요(대륙횡단도로 건설, 교량 건설 등) 우선 반영
 - 개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②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

- 농업 생산성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 관개시설 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효율화 ⇒ 농업생산성 증대
- 농업의 산업화 관련 전문 인력 파견, 관개 관련 지식공유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③ (보건의료)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보건 의료 분야의 불평등 완화

- 기존 한국병원의 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소외지역 내 병원 건설
-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 내에서 보건에 대한 인식 강화
- 초청연수,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V. 이행 전략

☐ (지원규모) '12-'15년간 약 **1,950억원*** 규모 지원 예정

* 유상 1,500억원, 무상 450억원 규모

- 양자원조의 최소 **70%** 이상을 중점분야에 지원

☐ (현장중심의 ODA)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활성화, 현지 사무소 인력 확충 및 전문가 채용 확대 등

☐ 원조효과성 제고

- (사업간 연계)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 ⇒ 정책 일관성 제고

- **(원조일치)** 볼리비아 수원총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토대로 국가 개발계획 및 분야별 계획에 부합하는 지원 실시
- **(원조조화)** 타 공여국과의 원조분업 강화,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S**)* 참여를 통한 협력 방안 강구
 - * Grupo de Socios para Desarrollo de Bolivia (GruS) : 16개 공여국과 7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회의체

□ **(민간과의 협력)** NGO 및 민간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13년까지 민관협력(PPP) 시범 사업 발굴·시행

VI. 성과관리 방안

- **(모니터링)** 사업별 진행,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점 분야별로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 필요시 전략 수정
- **(평가)** 사업 종료 전후, 사업 기관별 및 주제별로 평가하며, 볼리비아 정부와의 공동으로 시행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협력 전략에 반영

한국형 ODA 모델 수립계획(안)

2012. 3.

국무총리실

목 차

I . 한국형 ODA 현황 및 과제	47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7
2. 한국형 ODA 추진현황	48
3. 평가 및 과제	49
II . 한국형 ODA 모델 수립계획	50
1. 기본구상	50
2. 추진체계	51
3. 용역계획	52
III . 추진일정	5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후 독립국 중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기존 선진국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
 - 개도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식민지배, 전후복구 등)을 통해 개도국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위
 -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책·제도·사업·기술 등 **ODA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보유**
 - * 특히, 120억불 규모에 이르는 수원경험을 바탕으로 원조를 국가발전의 촉매제(catalyst)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
- 최근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와 함께 개도국의 발전경험 공유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은 **ODA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은 자국 발전의 롤 모델로 인식
 - * 토니블레어 영국 前 총리, “한국은 효율적인 원조의 성공사례”
 - 말라위 에티오피아 총리, “한국은 발전경험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보다 아프리카에 기여할 수 있다”
- **OECD DAC 가입('09.11), G20 개발의제('10.11), 부산세계개발 원조총회('11.11)** 등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논의를 주도
 - 개발효과성 논의 등 새로운 이슈를 선도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

⇒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하여 세계 ODA를 선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

2. 한국형 ODA 추진현황

-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기본법('10.7), ODA 선진화방안('10.10), 기본계획('10.12) 등을 통해 ODA 기본방향과 철학을 정립
 - 기본법상 우리 ODA는 개도국 빈곤감소, 여성·아동 인권향상,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 증진을 추구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 'ODA 선진화 방안'은 법상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국격 제고를 추구
 - *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 (콘텐츠 구축) 'ODA 선진화 방안'에 따른 3대 선진화 전략 중 하나로 개발협력 콘텐츠를 구축·정리 중
 - 개발경험(정책·제도), 사업기술(프로젝트), 감성(진정성) 분야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재정부·외교부)에서 실무작업 진행 중
 - * ① 개발경험 : 60개 모듈화 과제를 기완료하고, 금년 중 40개 과제를 추가하여 금년 중 총 100개 과제 정리를 완료(재정부)
 - ② 사업기술 : 8개 분야 134개 사업·기술 목록을 토대로 한 원조모델 수립방안 마련 (외교부)
 - ③ 감성 : 감성분야 개발협력콘텐츠안 마련 (외교부)
- (사업프로그램) KSP, 새마을운동 등 우리의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함께 사업추진과정에 발전경험을 반영(KOICA)
 - 지난해에는 새마을운동, 모자보건, 직업훈련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ODA 사업모델을 시범 수립('11.8, 제10차 위원회)

3. 평가 및 과제

◇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을 집대성하여 핵심가치와 콘텐츠, 추진체계가 결합된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할 단계

□ (기본방향)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추진원칙, 이념 등은 기본법과 **ODA**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정립

○ 그 동안의 정책적 노력을 정리·보완하여 ‘한국형 **ODA** 모델’의 핵심가치를 도출할 단계에 도달

○ 더불어, 기본법 제정 및 ODA 선진화 방안 이후 도출된 **G20** 개발의제, 부산선언 등 변화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할 필요

□ (콘텐츠 구축) 분야별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은 금년 중 1차 완료

○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발전경험의 핵심을 정리하여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

○ 우리가 국가발전에 활용한 정책·제도·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단계별·분야별로 분석하여 발전경험 공유 수요에 부응

□ (추진방안)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사업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

○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활용가능토록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민관협력(PPP) 활용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추진체계를 정립

1. 기본구상

-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규범에 따른 사업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보편화된 모델 마련
 - 최빈국을 벗어나 경제개발·사회개발·인간개발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모델을 마련
- (구성방안) 우리나라 ODA의 핵심가치, 사업프로그램, 추진 체계의 3대 축으로 구성
 - ① 핵심가치 :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가치를 도출
 - ② 사업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단계별, 분야별 최적의 ODA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정리(30여개)
 - * 예시 : 농촌개발, 신도시개발, 공중보건, 의무교육, 수출진흥, 식수위생 등
 - ** 정책자문, 기술협력, 프로젝트 등을 One-stop으로 제공토록 패키지화
 - ③ 추진방안 : 추진체계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민관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등 실행방안 마련
- (활용방안) 개도국 수요 및 현지실정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선정 후, 철저히 현지화(taylor-made)하여 시행
 - 프로그램 구성 등 '한국형 ODA 모델' 전체를 공개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 협력사업에 활용하여 전 세계로 확산

2. 추진체계 : 민관합동 T/F를 통해 실무작업을 총괄·관리

□ **(T/F 구성)** 모델 기본방향 제시 및 보고서 작성 등 실무작업을 총괄·관리하는 민관 합동 '**한국형 ODA 모델 T/F**' 구성

○ 구성방안 : 총리실 주관 하에 **ODA**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포함시켜, **10인 이내 민·관 동수로** 위원 구성

* 섹터별 전문가 등은 연구용역팀에 포함시켜 실무 참여

< 한국형 ODA 모델 T/F 구성 >

◇ 위원장(1)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 정부측(5) : 총리실(간사)·재정부·외교부 국장급,
KOICA·EDCF 이사

◇ 민간측(5) : 손혁상(경희대), 권율/박수경(KIEP), 차문중(KDI),
주동주(산업연구원), 한재광(ODA WATCH)

* T/F 지원을 위해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주재 실무반 별도 운영

○ 기본역할 : 모델의 기본구성, 세부계획, 활용방안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

□ **(연구용역 실시)** **KDI·KIEP·KIET** 공동 주관(잠정) 하에 분야별 연구기관과 합동연구를 실시하여 기본안을 마련

○ 기본안을 토대로 주관기관 및 **KOICA·EDCF**,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마련

□ **(모델 확정)** T/F에서 제시된 모델안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반기중)

3. 용역계획

- (핵심임무) 한국형 ODA 모델의 지향성·차별성 정립 및 주요 전환기별 발전경험 분석, 핵심 **ODA 콘텐츠** 발굴·정리
 - 모델의 기본틀과 방향 제시 : 선진국 ODA모델과의 차별성,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한국형 ODA 모델의 기본방향 정립
 - * ODA 국제규범과의 조화 및 개발효과성 등 새로운 규범 포함
 - 발전경험 분석 및 핵심 **ODA프로그램** 제시 : 주요 단계별 발전정책 분석을 통해 성공·실패요인 분석, 비교우위 분야 분석을 통해 패키지형 ODA 사업 프로그램 제시
 - 적용방안 제시 : 현지화 방안, 사업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한국형 ODA 모델의 적용 방안을 제시
- (용역체계) **KDI·KIEP·KIET** 공동 주관 하에 분야별 연구기관과 합동연구를 실시하고, 사업기관과의 협의 실시
 - 분야별 연구 : ODA 선진화방안에 따른 개발협력콘텐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실시
 - 사업기관 협의 : 분야별 연구기관의 1차 용역결과는 주관기관 주도하에 **KOICA, EDCE**,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연구센터) 협동연구자금 활용

< 분야별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

분야		연구기관	관계부처
총괄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T/F
분야별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정부
	보건의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
	인적자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과부, 고용부
	행정·ICT	한국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행안부, 방통위
	농어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국토건설	국토연구원	국토부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산업에너지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경부
범분야		여성정책연구원	여성부

Ⅲ

추진 일정

① '한국형 ODA 모델 T/F' 구성 (2월초, 총리실)

- T/F 구성안 확정 및 위원 섭외를 거쳐 1차 회의 개최(2.10)

② 기본방향 및 세부일정 확정 (2월중, T/F)

- 3차례 T/F 집중 회의를 통해 기본안 · 세부일정 확정(2.10~24)

③ 연구용역팀 구성 및 용역 발주 (2월말, 총리실 · 경인사)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확정(2월말)
- 입찰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등 연구용역 발주 완료(3.7)

④ 중간보고회 겸 워크숍 (4~5월초, 용역팀 → T/F)

- T/F, 학계 · NGO를 대상으로 2~3회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진도 점검 및 수정 · 보완사항 제시

⑤ 대국민설명회 및 국제세미나 (5월 중, 용역팀)

- 대국민설명회를 통해 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국제세미나 실시

⑥ 최종보고 (6월, 용역기관)

- T/F 5차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T/F에 보고

⑦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하반기)

-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1. 한국형 ODA 모델의 핵심가치 정립

- 핵심임무 :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변화된 국제환경을 토대로 '한국형 ODA 모델'의 핵심가치를 정립
- 담당기관 : 한국형 **ODA 모델 T/F**에서 기본방향 제시
- 연구방식 : T/F의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보완
 - * 연구대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ODA 선진화 방안, 기본 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부산선언, G20 개발의제 등

2. 발전경험에 기반한 한국형 ODA 프로그램 정리

< ODA 프로그램 정리단계 개요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핵심임무	기본방향 정립 발전경험 분석	프로그램 풀 구축	핵심프로그램 추출	세부사업 구성
중점사항	성공·실패 요인 정리	프로그램 효과성	활용가능성 검토	현지화·사업화

□ (1단계) 주요 전환 단계별·분야별 발전경험 분석 및 정리

- 핵심임무 : 시대별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계별 정책·제도·사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도출
- 담당기관 : KDI·KIEP·KIET(총괄), 분야별 연구기관
 - * 주관기관, KOICA·EDCF 참여
- 연구방식 : 기존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작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정리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
 - * 연구대상 : 개발경험 모듈화 자료, 사업기술 목록, KOICA·EDCF 등 관계기관 연구용역 자료 등

□ **(2단계)** 발전단계별 ·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풀(Pool) 제시

- **핵심임무** : 발전경험 분석을 토대로 국가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풀*(Pool)**을 제시

* 예시 : 분야별 20여개, 총 200여개

- **담당기관** : KDI · KIEP · KIET(총괄), 분야별 연구기관

* 주관기관, KOICA · EDCF 참여

- **연구방식** : 사업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 풀(Pool)을 정리하고, 프로그램별 강점분야, 선정사유를 제시

□ **(3단계)** 발전단계별 · 분야별 핵심 프로그램 도출

- **핵심임무** : 프로그램 풀(Pool)에 대한 **현지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토대로 **40여개 핵심프로그램**을 추출

- **담당기관** : 주관기관(주관), 분야별 관계부처(협조), 연구기관(보조)

- **연구방식** : 프로그램별 **현지화 · 사업화 가능성, 개도국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핵심프로그램을 정리

□ **(4단계)** 핵심프로그램별 적용방안 수립

- **핵심임무** : 프로그램별 **사업구성방안, 성공 및 실패 요인,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등 세부계획 정리

- **담당기관** : 주관기관(주관), 분야별 관계부처(협조), 연구기관(보조)

- **연구방식** :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그룹별 세부사업 구성 및 **현지화 · 사업화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

3. 한국형 ODA 프로그램 추진방안 수립

- 핵심임무 : ODA 핵심프로그램 추진체계 수립,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추진방안을 마련
- 담당기관 : 주관기관(주관), 분야별 관계부처(협조), 연구기관(보조)
- 연구방식 : 현행 ODA 추진체계를 기초로 사업단계별 추진 방안, 민관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첨부 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세부일정(안)

주요업무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한국형 ODA 모델 T/F 구성																
○ T/F 구성안 확정																
○ 민간위원 섭외 및 부처 협의																
☐ 기본방향 및 세부일정 확정																
○ T/F 1차~3차 회의 개최																
☐ 연구용역팀 구성 및 용역발주																
○ 과업지시서 확정																
○ 연구용역 발주 완료																
☐ 중간보고회 겸 워크숍																
○ T/F, 학계, NGO의 검토의견 반영																
☐ 대국민설명회 및 국제세미나																
○ 대국민설명회 개최																
○ 국제세미나 개최(필요시)																
☐ 최종보고 (6월, 용역기관)																
○ T/F 5차 회의 개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 ‘한국형 ODA 모델’ 확정																
☐ 대외공개 및 활용																
○ 시범사업 추진																